

釋讀口訣資料의 處格語 研究

— 名詞의 讀法과 關聯하여 —

조호 사토시(上保 敏) *

I. 머리말

요즘 口訣資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字吐釋讀口訣資料에 대한 분석이 이를 推進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近年에는 點吐釋讀口訣資料까지 많이 발견되어 이 방면의 연구는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口訣資料 自體만 가지고 접근하여 그 당시의 한국어 체계를 15세기의 그것과 완전히 斷絶된 모습으로 따로 그려내는 논의들도 散見된다. 아무리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15세기 한국어의 체계를 참조하면서 연구해 나가야 됴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본고는 字吐釋讀口訣資料¹⁾에 나타난 處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위에서 말한 방침에 따라, 특히 15세기 한국어에 보이는 현상을 참조하면서 그 格을 취한 명사의 讀法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 東京大學·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본고에서 以下 '釋讀口訣資料'라 하는 경우에는 '字吐釋讀口訣資料'만을 가리킴을 밝혀 둔다.

II. 석독구결자료의 처격 체계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처격 체계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舊譯仁王經〉을 비롯하여 기타 借字表記資料인 鄉歌나 吏讀資料를 분석한 南豊鉉(1977)이 있었고, 또 나머지 석독구결자료의 발견 후에는 李建植(1996), 박진호(1998) 등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李建植(1996)에서는 처격형을 취한 명사들의 자세한 리스트까지 제시되고, 이 방면의 연구는 이로써 集大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석독구결자료에 보이는 처격은 ‘-ㅅ +, -ㅅ, ->, -之, -ㅅ + / -ㅅ +, -> +, -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처격 체계 그 自體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들 處格形으로 나타난 명사의 讀法에 대해서이다. 구체적으로 하면 이들 명사를 音讀했느냐, 訓讀했느냐, 訓讀했다면 그 訓은 무엇이나에 대해서 문제삼으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15세기 한국어의 처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15세기 한국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I. 15세기 한국어의 처격 체계

잘 알려져 있듯이 15세기 한국어의 처격은 ‘-·예, -·애/·예, -·이/·의’²⁾ 등이 있는데, 그 분포 양상은 대체로 처격형으로 나타나는 명사의 語種과 末音節의 성격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 지금 志部昭平(1990: 71~72)를 참조하면서 그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1)과 같다.

2) 본고에서는 15세기 이후의 한국어에 대해 언급을 할 때에는 논의의 性格上 악센트를 표시하는 傍點을 찍음을 基本으로 한다. 즉, 無點은 平聲(低調), ‘·’는 去聲(高調), ‘ˊ’는 上聲(上昇調)을 뜻한다.

- (1) ㄱ. -·예
 末音節이 i母音 또는 音節副音 y일 때
- ㄴ. -·애/·에
 a. 固有語로 末音節의 악센트가 去聲 또는 上聲일 때
 b. 漢字語
- ㄷ. -·익/·의
 a. 固有語로 末音節의 악센트가 平聲일 때
 b. 一音節이며 平聲인 一部 特殊한 漢字語 (城, 門, 南, 瓶, 堂, 宮 등)

(1) 중에서 (1ㄱ)은 自明하며, (1ㄴ, ㄷ)이 15세기 한국어의 처격 체계의 核心이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漢字語는 '-·애/·에'로 나타나고, 固有語 중에서 소리가 높은 것은 '-·애/·에', 낮은 것은 '-·익/·의'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³⁾ (1ㄷ-b)는 극히 例外的인 것으로, 이들 '城, 門, 南, 瓶, 堂, 宮' 등은 '-·익/·의'로 나타날 수 있다.⁴⁾ 이에 대해서 志部昭平(1990: 71~72)는 그들 漢字語가 固有語化한 結果 固有語의 法則에 따라 例外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였다.⁵⁾ 또 이렇게 보면 (1ㄱ)의 '-·예'는 (1ㄴ, ㄷ)과 같은 구별, 즉 한자어나 고유어나, 고유어면 소리가 높으나 낮으냐에 상관없이

3) 다만 河野六郎(1951=79: 427~430), 志部昭平(1990: 46), 유필재(2001: 137) 등에서 지적되었듯이 1음절이며 去聲인 명사 중에는 처격형 '-·애/·에'로 나타난 경우에 악센트가 平聲化하고 처격형 전체의 악센트가 表面上 '平去'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약간 주의를 요한다. 志部昭平(1990: 46)에서는 ①單音節, ②去聲, ③子音 및 '리'로 끝나는 명사가 대개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그 리스트가 일부 제시되었다. 즉 다음 (ㄱ)은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 (ㄴ)은 그렇지 않는 명사이며, 또 이러한 平聲化의 발생 여부는 단어마다 아예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ㄱ. ·날(日), ·뜻(義), ·입(口), ·눈(目), ·고(高), ·손(手), ·곳(所), ·끝(端), ·깃(衿), ·숲(森), ·빛(光), ·안(內), ·몸(體)

ㄴ. ·물(水), ·불(火), ·달(月), ·꿈(夢), ·힘(力), ·жат(城)

4) 여기서는 이들 단어가 반드시 '-·익/·의'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이들 한자도 '-·애/·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부연해 둔다. 다만 '-·익/·의'와 '-·애/·에'의 출현 빈도는 각 한자마다 경향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5) 물론 이들 한자 중에서도 그 訓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城(·жат), 門(오래-오래), 南(앞)'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5세기 이후의 정음 문헌에 있어서도 이들 訓의 사용은 드물며, 한자어 자체로 나타남이 보통이다.

末音節이 i母音 또는 音節副音 y인 경우에 모두 다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분포 양상을 기초로 해서 석독구결자료의 처격 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 ㅅ +, - ㅅ, - ㅅ, - ㅅ, - ㅅ, - ㅅ + / - ㅅ +, - ㅅ +, - ㅅ +’ 중에서 어떤 것은 ‘- · 애 / · 에’ 계통, 어떤 것은 ‘- · 이 / · 의’ 계통, 그리고 ‘- · 예’ 계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처격형으로 나타난 명사들의 독법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석독구결자료의 분석

여기서는 앞 章에서 언급된 15세기 한국어의 처격 체계를 참조하면서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난 처격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⁶⁾

1. ‘- ㅅ +’

석독구결자료에서는 처격형이 대부분 ‘- ㅅ +’로 나타난다. 이 ‘- ㅅ +’는 ‘良中’의 略體字로 2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도 자주 실현되고 이들 한자를 訓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⁷⁾ 15세기 한국어의 ‘- · 애 / · 에’ 계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 다음 (2)와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6) 본고에서는 연세대학교 장경준 선생님이 입력한 석독구결자료 텍스트 파일과 한양대학교 박진호 선생님이 개발한 콘코던스 프로그램인 UniConc를 이용하여 용례를 抽出하였음을 밝히고, 그와 함께 影印 또는 研究者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는 影照로 확인 작업을 하였다. 한국어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들 자료를 아낌없이 공개하여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謝意를 표한다.

7) 참고로 박진호 선생님(私言)에 의하면 2음절 한자어라 할지라도 서로 유사한 의미로 구성된 한자어의 경우에는 이를 訓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 (2) ㄱ. 十地 ㅅ + <舊譯仁王經 上 02:11>, <金光明經 卷3 12:11>
 無生智 ㅅ + <華嚴經 卷14 03:19>
 奢摩他支 ㅅ + <瑜伽師地論 卷20 26:18>, <瑜伽師地論 卷20 27:01>
 毘鉢舍那支 ㅅ + <瑜伽師地論 卷20 26:17>, <瑜伽師地論 卷20 26:21>
 ㄱ'. 正位 ㅅ + <舊譯仁王經 上 11:18>
 未來 ㅅ + <金光明經 卷3 08:09>, <華嚴經疏 卷35 23:14> 등
 威儀 ㅅ + <華嚴經 卷14 06:19>
 煩惱 ㅅ + <瑜伽師地論 卷20 15:15>, <瑜伽師地論 卷20 27:02>
 ㄴ. 經典 ㅅ + <華嚴經疏 卷35 24:19>
 幻化 ㅅ + <舊譯仁王經 上 15:08 난상>
 國土 ㅅ + <舊譯仁王經 上 02:14>, <華嚴經 卷14 16:11>, <華嚴經疏 卷35 13:14> 등
 善法 ㅅ + <瑜伽師地論 卷20 28:02>, <瑜伽師地論 卷20 28:03>

(2ㄱ)은 末音節이 i母音인 한자어, (2ㄱ')은 音節副音 y인 한자어가 ‘-ㅅ +’로 나타난 예이고, (2ㄴ)은 그렇지 않은 예이다. 末音節이 i母音 또는 音節副音 y인 한자어가 ‘-ㅅ +’로 나타난 예는 (2ㄱ, ㄱ') 이외에도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면 15세기 한국어의 ‘-· 예와 ‘-· 예/· 예가 이들 자료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음절 한자어가 이 ‘-ㅅ +’로 나타난 경우이다. 이 때에는 그 1음절 한자어를 音讀했을 가능성과 訓讀했을 가능성이 둘다 있다. 이들 1음절 한자어는 15세기 한국어에서 末音節의 去聲 또는 上聲인 訓이 있을 경우에는 그 訓으로 읽혔을 가능성과 그대로 音讀했을 가능성의 두 가지가 있고, 15세기 한국어에서 그러한 訓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音讀했을 것으로 보인다.

(3) ㄱ. 音讀한 것으로 생각되는 예

- a. 家 ㅅ + <華嚴經 卷14 07:05>, <瑜伽師地論 卷20 16:23> 등
 心 ㅅ + <舊譯仁王經 上 15:04>, <華嚴經 卷14 04:21>, <金光明經 卷3 04:07>, <瑜伽師地論 卷20 15:19>, <華嚴經疏 卷35 15:11> 등
 前 ㅅ + <舊譯仁王經 上 11:22>, <華嚴經 卷14 12:15>, <華嚴經疏 卷35 12:10>
 里 ㅅ + <華嚴經 卷14 07:03>

- b. 劫 3 + 〈華嚴經 卷14 14:22〉, 〈華嚴經疏 卷35 25:09〉 등
 化 3 + 〈華嚴經 卷14 18:01〉
 報 3 + 〈舊譯仁王經 上 11:07〉
 定 3 + 〈瑜伽師地論 卷20 09:14〉
 往 3 + 〈華嚴經 卷14 08:22〉
 念 3 + 〈華嚴經 卷14 13:16〉, 〈華嚴經疏 卷35 23:10〉, 〈華嚴經疏 卷35 23:10〉
 教 3 + 〈瑜伽師地論 卷20 14:01〉, 〈瑜伽師地論 卷20 14:02〉
 智 3 + 〈華嚴經 卷14 07:23〉
 欲 3 + 〈瑜伽師地論 卷20 20:12〉 등
 法 3 + 〈華嚴經 卷14 18:10〉, 〈金光明經 卷3 04:21〉, 〈瑜伽師地論 卷20 04:10〉, 〈華嚴經疏 卷35 23:12〉
 現 3 + 〈舊譯仁王經 上 11:17〉
 生 3 + 〈瑜伽師地論 卷20 09:14〉
 苦 3 + 〈瑜伽師地論 卷20 13:21〉, 〈瑜伽師地論 卷20 18:13〉
 蓋 3 + 〈華嚴經 卷14 16:24〉
 藏 3 + 〈華嚴經疏 卷35 20:04〉
 行 3 + 〈舊譯仁王經 上 15:16〉
 觀 3 + 〈瑜伽師地論 卷20 26:20〉
 解 3 + 〈舊譯仁王經 上 15:05〉
 諦 3 + 〈舊譯仁王經 上 15:06〉
 障 3 + 〈瑜伽師地論 卷20 26:04〉
 愛 3 + 〈華嚴經疏 卷35 17:13〉
 相 3 + 〈瑜伽師地論 卷20 22:16〉

ㄴ. 音讀과 訓讀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예

- a. 位 3 + 〈華嚴經疏 卷35 11:17〉, 〈華嚴經疏 卷35 12:09〉
 口 3 + 〈舊譯仁王經 上 11:10〉
 地 3 + 〈華嚴經 卷14 10:01〉
 意 3 + 〈舊譯仁王經 上 03:17〉
 水 3 + 〈華嚴經 卷14 04:13〉, 〈華嚴經 卷14 07:23〉, 〈華嚴經 卷14 19:05〉
 義 3 + 〈金光明經 卷3 13:14〉, 〈瑜伽師地論 卷20 04:05〉, 〈瑜伽師地論 卷20 15:05〉 등
 身 3 + 〈華嚴經 卷14 08:14〉, 〈瑜伽師地論 卷20 28:15〉, 〈華嚴經疏 卷35 09:19〉
 道 3 + 〈華嚴經 卷14 02:14〉, 〈華嚴經 卷14 04:20〉 등
 體 3 + 〈華嚴經 卷14 08:03〉

- 手 3 十 <華嚴經 卷14 04:10>, <華嚴經 卷14 04:17> 등
 境 3 十 <瑜伽師地論 卷20 06:17>
 杵 3 十 <華嚴經 卷14 20:03>
 臆(3 十?) <金光明經 卷3 06:16>⁸⁾
 食 3 十 <瑜伽師地論 卷20 19:16>
 味 3 十 <華嚴經疏 卷35 09:16>
 色 3 十 <華嚴經疏 卷35 17:05>
- b. 事 3 十 <華嚴經 卷14 06:09>, <瑜伽師地論 卷20 25:08>
 事 3 十 刀 <瑜伽師地論 卷20 22:02>
 後 3 十 <瑜伽師地論 卷20 31:13>
- c. 初 3 十 <華嚴經疏 卷35 08:03>
 頂 3 十 <華嚴經 卷14 05:08>
- ㉔. 두 가지 以上の 訓이 想定되는 예
- 中 3 十 <舊譯仁王經 上 11:21>, <華嚴經 卷14 04:13>, <金光明經 卷3 13:18>, <瑜伽師地論 卷20 06:10>, <華嚴經疏 卷35 09:13> 등
- 中 3 十 7 <華嚴經 卷14 16:04>, <瑜伽師地論 卷20 08:05>, <瑜伽師地論 卷20 27:06>
- 內 3 十 <瑜伽師地論 卷20 10:21>
 種 3 十 <瑜伽師地論 卷20 08:08>
 底 3 十 <華嚴經疏 卷35 24:13>
 所 3 十 <華嚴經 卷14 08:03>, <瑜伽師地論 卷20 08:19>, <華嚴經疏 卷35 23:16> 등
- 所 3 十 刀 <華嚴經 卷14 17:03>
 處 3 十 <瑜伽師地論 卷20 15:17>, <瑜伽師地論 卷20 29:12>
 土 3 十 <華嚴經 卷14 13:05>
- ㉕. 特殊한 예
- 門 3 十 <華嚴經 卷14 07:04>, <華嚴經疏 卷35 26:08>

(37-a)의 예들은 想定될 訓이 각각 ‘家(집), 心(마음), 前(앞), 里(마술ㅎ)’과 같이 말음질의 악센트가 平聲이기 때문에 그 訓으로 읽힌 것이 아니라

8) 이 예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는 影照(사진 파일)로 확인해 보아도 辨別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은 장경준 선생님이 입력한 대로 표시해 놓기로 한다.

音讀한 것으로 보인다.⁹⁾ 마지막의 ‘뿔’의 한자음은 말음절이 i母音이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이 경우에도 ‘- ㅅ +’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 (3-1-b)의 단어들은 訓 自體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音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물론 이들 예들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訓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의 말음절의 악센트가 去聲 또는 上聲인 경우에는 그 訓으로 읽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a)의 예들은 想定될 訓이 각각 ‘位(벼·슬), 口(·입), 地(·싸ㅎ), 意(·뜻), 水(·물), 義(·뜻), 身(·몸), 道(·길ㅎ), 體(·몸), 手(·손), 境(·터ㅎ), 杵(·고), 臆(가·슴), 食(·밥), 味(·맛), 色(·빛)과 같이 말음절의 악센트가 去聲인 것, (3-1-b)는 ‘事(:일), 後(뒤ㅎ)과 같이 上聲인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訓으로 읽혔을 가능성과 그대로 音讀했을 가능성이 둘 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3-1-c)의 ‘初 ㅅ +’의 예는 15세기 한국어에서 ‘初’의 訓으로 想定될 단어가 ‘·처섬~·처·섬’처럼 제1음절이 去聲이기 때문에 제2음절은 平聲일 수도 있고 去聲일 수도 있으며, 그 어느 쪽의 악센트냐에 따라 ‘·처셔·의’로도 나타나고 ‘·처셔·매¹⁰⁾’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되는 가능성은 제2음절이 去聲인 ‘·처·섬’, 아니면 그대로 音讀한 것의 두 가지이다. 또한 ‘頂 ㅅ +’의 경우에도 15세기의 ‘頂’에 대한 訓이 ‘·덩·바기~·덩바·기~·덩바·기~·덩·바·기’ 등으로 악센트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게다가 i母音으로 끝나 처격형이 ‘-·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애/·에’ 계통인지 ‘-·익/·의’ 계통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여기서는 일단 末音節의 악센트가 去聲인 ‘·덩바·기~·덩바·기~·덩·바·기’로 읽혔거나 그대로 音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1-d)의 예들은 ‘中(가·온디~가·온·디, ·속~·숨, ·안ㅎ), 內(가·온

9) 다만 ‘먹숨’의 경우는 15세기에 ‘먹스·막’와 함께 ‘먹스·매’로도 많이 나타나므로 약간 문제가 된다. 따라서 ‘心 ㅅ +’를 訓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0) 여기서 ‘·처셔·매’의 ‘셔’가 平聲임은 이른바 去聲不連三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원래는 去聲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디~가·온·디, ·속~·습, ·안ㅎ), 種(갓, ·씨), 底(밑, 아·래), 所(·바, ·곳), 處(·바, ·곳), 土(·싸ㅎ, 흙)과 같이 訓이 두 가지 以上 想定되는 것들이다. 이들 訓 중에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앞의 (3ㄱ, ㄴ)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말음절의 악센트가 平聲인 訓이 택해진 경우에는 그대로 音讀하고, 去聲 또는 上聲인 訓이 택해진 경우에는 그 訓으로 읽혔을 가능성과 音讀했을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이다.¹¹⁾

(3ㄴ)의 ‘門’은 (1)에서 지적했듯이 15세기 한국어에서 처격형이 예외적으로 ‘·인/·의’로 나올 수 있는 1음절 한자어인데, 그 이유는 이 1음절 漢字語가 固有語化한 結果 固有語의 法則에 따라 例外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門 ㅅ +’로 나타난 것은 아직도 ‘門’이 한자어라는 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15세기 정음 문헌에서 ‘門’의 처격형은 ‘門·인’로도 나타나지만 ‘門·애’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門’을 그대로 音讀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그 訓인 ‘오래~오·래’ 중에서 제2음절이 去聲인 ‘오·래’로 읽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ㅅ’

‘-ㅅ’는 ‘良’字의 略體字로 南豐鉉(1977)에서 기원적인 처격 형태로 추정된 것이다. 이 처격형 ‘-ㅅ’는 항상 속격 ‘ㄷ’이 통합한 ‘-ㅅ ㄷ’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 (4)가 그 예들이다.

- (4) ㄱ. 天上 ㅅ 七 <華嚴經 卷14 15:13>
 頂上 ㅅ 七 <金光明經 卷3 06:18>
 空谷 ㅅ 七 <金光明經 卷3 13:15>
 道樹 ㅅ 七 <華嚴經 卷14 15:19>
 南方 ㅅ 七 <舊譯仁王經 上 03:07>

11) 다만 ‘土 ㅅ +’의 예는 ‘不可思議 七 土 ㅅ 十 住 ㅅ 亦 <華嚴經 卷14 13:05>’와 같은 문장에서 나오므로 ‘·싸ㅎ, 흙’ 중에서 ‘흙’이 상정될 가능성은 稀薄할 것이다. 물론 ‘흙’이 平聲이기 때문에 이 訓이 상정되었다고 해도 音讀했을 것이다.

- ㄴ. 獸 ㅅ 七 <金光明經 卷3 06:16>
 道 ㅅ 七 <華嚴經 卷14 09:20>
 中 ㅅ 七 <舊譯仁王經 上 02:06>, <華嚴經 卷14 19:08>, <瑜伽
 師地論 卷20 06:17> 등
 內 ㅅ 七 <華嚴經 卷14 15:10>

(4ㄱ)은 2음절 한자어가 ‘-ㅅ’로 나타난 예들 중에서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용례가 이 이외에도 많이 나타나므로 ‘-ㅅ’는 15세기 한국어의 ‘-애/·에’ 계통의 처격임을 알 수 있다.

1음절 한자어에서 실현된 예로는 (4ㄴ)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獸’는 訓을 想定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대로 音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道’는 앞 節에서 보았듯이 ‘·길ㅎ’과 같이 去聲인 訓이 想定되므로 音讀과 訓讀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또 ‘中, 內’도 앞 節에서 보았듯이 ‘가·온더~가·온·디, ·속··슉, ·안ㅎ’ 등의 訓이 생각되나, ‘-ㅅ’가 ‘-애/·에’ 계통이므로 말음절이 去聲인 ‘가·온·디, ·속··슉, ·안ㅎ’으로 읽히거나 아니면 그대로 音讀한 것으로 생각된다.¹²⁾

3. ‘-ㄹ’

‘-ㄹ’은 ‘衣’字의 略體字이므로 15세기 한국어의 ‘-·익/·의’ 계통의 처격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 ‘-ㄹ’로 처격을 나타내는 용례는 다음 (5)와 같이 ‘前’字의 경우에만 보인다.

12) 참고로 서울대학교 이현희 선생님(私言)에 의하면 이 ‘中 ㅅ 七’과 앞 節 (3ㄷ)에 나온 ‘中 ㅅ +, 中 ㅅ + 7’ 등의 예는 다음과 같은 15세기 한국어의 용례에서 항상 ‘中’字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音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ㄱ. 모·돈 中에 毛骨·을 :보니 ·오히·려 ·이 麒麟·의 샷·기로·다 [衆中見 毛骨猶是麒麟兒 <初刊本 杜詩諺解 卷22 41b>

ㄴ. ·ᄃ다·가 菩薩·이 ·이 모·돈 中·에 能·히 一心·으로 諸佛·實法·을 드르·리 이시·면 諸佛·世尊·이 비·록 方便·을 ·쓰·나 化·ᄃ·논 衆生·은 :다 菩薩·이니·라 [若有菩薩이 於時衆中에 能一心으로 聽諸佛實法ᄃ면 諸佛世尊이 雖以方便이나 所化衆生은 皆是菩薩이니라 <法華經諺解 卷2 149b>

- (5) 前 ⇒ 〈舊譯仁王經 上 02:20〉, 〈舊譯仁王經 上 11:01〉, 〈瑜伽師地論 卷20 23:04〉 등

이 ‘前’은 南豐鉉(1977: 87~88), 李建植(1996: 144~145), 박진호(1998: 182~183) 등의 분석대로 訓讀해서 ‘알피’와 같이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앞’은 平聲이기 때문에 이 추정은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4. ‘-ㄷ’

‘-ㄷ’도 항상 속격 ‘ㄷ’이 통합한 ‘-ㄷ七’의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 (6)과 같이 ‘一切’의 예만 보인다.

- (6) 一切之七 〈舊譯仁王經 上 15:25〉, 〈華嚴經 卷14 03:16〉, 〈金光明經 卷3 06:07〉, 〈瑜伽師地論 卷20 15:15〉, 〈華嚴經疏 卷35 10:12〉 등

이 ‘-ㄷ’에 대해 장윤희(2004: 63)은 ‘-의’, 또는 ‘-예’로 추정을 하였다. 이 ‘一切’는 ‘일체’로 읽혔을 가능성과 ‘일절’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서 본 15세기 한국어의 처격 체계에 의하면 ‘-ㄷ’은 전자면 ‘-·예’, 후자면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IV.1에서 말했듯이 15세기 한국어의 ‘-·예’와 ‘-·예/·예’의 구별이 석독구결자료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예’나 ‘-·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¹³⁾

5. ‘-ㄷ + / ㄷ +’

‘-ㄷ + / ㄷ +’는 ‘亦中’의 略體字로 다음 (7)과 같이 대부분 ‘時’字의 경우에 나타나고, 단 한번만 ‘上’字에도 나타난다.

- (7) ㄱ. 時 ㄷ + 〈華嚴經 卷14 13:14〉
 時 ㄷ + ㄱ 〈華嚴經 卷14 03:17〉, 〈華嚴經疏 卷35 23:10〉 등

13) 그러므로 장윤희(2004: 63)에서 추정된 ‘-의’의 가능성은 稀薄할 것으로 보인다.

- ㄴ. 時_ㅅ+ㅅ <華嚴經 卷14 03:01>, <瑜伽師地論 卷20 06:06>, <瑜
伽師地論 卷20 25:18> 등
 時_ㅅ+ㅅ+ㄱ <華嚴經 卷14 03:01>
 ㄷ. 上_ㅅ+ㅅ <金光明經 卷3 06:19>

(7)에서 제시한 ‘時, 上’을 음讀하면 ‘-ㅅ+ㅅ+ㅅ’는 15세기의 ‘-·애/·에’ 계통이 되고, 訓讀하면 想定될 訓이 각각 ‘時(熙), 上(우ㅎ)’으로 둘 다 平聲이기 때문에 ‘-ㅅ+ㅅ+ㅅ’는 ‘-·익/·의’ 계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ㅅ+ㅅ+ㅅ’가 ‘-·애/·에’ 계통인지 ‘-·익/·의’ 계통인지를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석독구결자료에서 15세기 한국어의 ‘-·예’와 ‘-·애/·에’의 구별이 잘 반영되지 않음을 몇 번 언급하였지만, 만약에 한 번만 나타난 (7ㄷ)의 ‘上_ㅅ+ㅅ’를 예외적인 것으로 치고, (7ㄱ, ㄴ)의 ‘時_ㅅ+ㅅ/時_ㅅ+ㅅ, 時_ㅅ+ㅅ+ㄱ/時_ㅅ+ㅅ+ㄱ’을 ‘올바른 것’으로 보면, ‘時’를 음讀한 경우 末音節이 i母音이기 때문에, 이 ‘-ㅅ+ㅅ+ㅅ’가 15세기 한국어의 ‘-·예’ 계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¹⁴⁾ 하지만 末音節이 i母音 또는 音節副音 y인 다른 단어가 ‘-ㅅ+ㅅ+ㅅ’로 나온 예가 없으므로 지금 당장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 ‘-ㅅ+ㅅ+ㅅ’는 ‘-·애/·에’ 계통, ‘-·익/·의’ 계통, 그리고 ‘-·예’ 계통의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해야 될 것이다.

6. ‘-ㅅ+ㅅ’

‘-ㅅ+ㅅ’는 대부분 有情名詞로 실현되므로 주된 기능을 興格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無情名詞로도 극소수이지만 나타난다. 다음 (8)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14) 참고로 韓相花(1994: 63-70)에 의하면 祇林寺本 <楞嚴經>에서는 처소격(처격)이 ‘-ㅅ’가 주로 나타나며 ‘-ㅅ+ㅅ’나 ‘-ㅅ+ㅅ+ㅅ’도 등장한다고 하고, ‘-ㅅ+ㅅ’로 나타난 예에 대해서는 선행원문이 ‘歲, 時, 提, 體’로 나타나고 있고 i나 y 다음에서 구결자 ‘-ㅅ+ㅅ’가 쓰인 것으로 보았다.

- (8) ㄱ. 此→十 <瑜伽師地論 卷20 30:10>
 事→十 <華嚴經 卷14 18:11>
 世→十 <金光明經 卷3 15:16>
 彼→十 <瑜伽師地論 卷20 15:12>, <瑜伽師地論 卷20 20:16>,
 <華嚴經疏 卷35 13:16>, <華嚴經疏 卷35 13:16>
 ㄴ. {此} ㄹ→十 <華嚴經 卷14 17:20>

(8ㄱ)의 예들은訓이 각각 ‘此(·이), 事(·일), 世(누·리/·늬), 彼(·더)’와 같이 상정되고, 말음절의 악센트가 去聲 또는 上聲이다. 따라서 이들은訓讀과 音讀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마지막의 ‘彼→十’은李建植(1996: 156)에서 지적되었듯이 문맥에 따라 부정명사로도 유정명사로도 해석된다. 즉, 다음 (9)의 ‘彼’는 바로 (8ㄱ)에 제시한 예로 부정명사로 해석되는 데 비해, (10)의 ‘彼’는 유정명사로 해석되는 것이다.

- (9) ㄱ. 又 卽→ {於} 彼→十 勝功德乙 見→分 又 求願→奇 勝功德乙 見
 奇→ㄱ 入乙 由→ 彼乙 求→{爲} 入→尸 入→ {故} 勇猛精進→
 策勵→ } 亦 而→ 住→分 <瑜伽師地論 卷20 15:12>
 ㄴ. 是 故→ {於} 彼→十 厭惡→ } 亦 而→ 住→尸 不厭惡→ 非
 矢 | <瑜伽師地論 卷20 20:16>
 ㄷ. 善根乙 以→ 八 {於} 彼→十 迴向尸 不→分 <華嚴經疏 卷35
 13:16>
 ㄹ. 亦→ㄱ {於} 彼→十 而→ 善根乙 退尸 不→分 <華嚴經疏 卷35
 13:16>
- (10) ㄱ. 又 復 {於} 彼→十 損害心 无→分 <瑜伽師地論 卷20 19:05>
 ㄴ. 彼→十 施→{爲} 入→尸 入→ {故} 支→ ; 而→ 自→ 食→
 十 ; 其 味→ 十 食尸 不→나 分 <華嚴經疏 卷35 09:16>
 ㄷ. 以→ 亦 彼→十 施→ 八 其 願乙 充滿→ 應→ 七→ ㄱ ㄹ→ 七
 分 <華嚴經疏 卷35 16:12>

또 (8ㄴ)의 ‘{此} ㄹ→十’은 ‘此’字的訓으로 보이는 ‘ㄹ’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此’는訓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용례를 통해서 ‘→十’은 일단 15세기 한국어의 ‘·애/·에’ 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十’에 ‘→’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에’ 계통이라

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익/·의’ 계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예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결론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가 대부분 유정명사로 나타나고 주된 기능을 與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8)의 예들은 例外的으로 무정명사에 빌려온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15세기 한국어에 있어서 平稱의 與格形은 ‘-·익그에/·의그에’, ‘-·익게/·의게’ 또는 ‘-·익거·긔/·의거·긔’와 같으므로 이 ‘-→+’는 이들 형태의 소급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與格形 ‘-·익그에/·의그에’, ‘-·익게/·의게’, ‘-·익거·긔/·의거·긔’ 등은 志部昭平(1990: 57-58)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원래 屬格形 ‘-·익/·의’와 장소를 나타내는 指示詞의 처격형이 합친 것에 由來되므로, 이렇게 보면 ‘-→+’의 ‘→’는 屬格의 ‘-·익/·의’와 관계되는 것이 되고, 處格의 ‘-·익/·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¹⁵⁾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事, 彼, 此, 世’ 등의 讀法을 추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7. ‘-+’

‘-+’도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에서 둘 다 나타나는데, 무정명사에 쓰인 예는 다음 (11)과 같이 나타난다.

- | | |
|--------------|----------------------------------|
| (11) ㄱ. 一切尸+ | 〈華嚴經 卷14 15:07〉 |
| 彼尸+ | 〈華嚴經 卷14 20:01〉 |
| 彼尸+ㄱ | 〈華嚴經 卷14 14:15〉, 〈華嚴經 卷14 14:16〉 |
| 時尸+ | 〈華嚴經疏 卷35 11:04〉 |
| 時尸+ㄱ | 〈華嚴經 卷14 17:22〉 |
| 時尸+尸入ㄱ | 〈華嚴經疏 卷35 11:13〉 |
| ㄴ. 二十ㄱ | 〈瑜伽師地論 卷20 21:02〉 |
| 四十ㄱ | 〈瑜伽師地論 卷20 22:04〉 |
| 世+ | 〈舊譯仁王經 上 14:05〉 |
| 世尸+ | 〈華嚴經 卷14 19:05〉, 〈華嚴經 卷14 20:05〉 |

15) 물론 處格의 ‘-·익/·의’와 屬格의 ‘-·익/·의’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ㄷ. 時十	〈舊譯仁王經 上 14:14〉, 〈華嚴經 卷14 09:01〉, 〈華嚴經疏 卷35 12:15〉 등
時十 7	〈華嚴經 卷14 03:06〉, 〈華嚴經 卷14 07:18〉 등
爾時十	〈華嚴經 卷14 02:10〉, 〈華嚴經 卷14 08:20〉, 〈金光明經 卷3 09:02〉
是時十	〈金光明經 卷3 13:01〉, 〈金光明經 卷3 14:24〉 등
ㄹ. 上十	〈舊譯仁王經 上 02:03〉, 〈舊譯仁王經 上 14:12〉
一十 7	〈瑜伽師地論 卷20 09:21〉, 〈瑜伽師地論 卷20 13:05〉, 〈瑜伽師地論 卷20 21:01〉 등

(11ㄱ)의 ‘一切尸十’은 2음절 한자어로 ‘尸’는 末音添記로 보이므로 ‘일절’로 音讀했을 것이며, ‘彼 7十, 彼 7十 7’, ‘時 7十, 時 7十 7, 時 7十 尸 7十’의 예에서도李建植(1996: 164~169)의 주장대로 ‘7’을 한자음 ‘彼, 時’의 末音添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한자는 그대로 音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⁶⁾ 따라서 ‘-7’은 일단 15세기 한국어의 ‘·-애/·-에’ 계통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11ㄴ)의 예들은 15세기 한국어의 訓이 각각 ‘二:(둘ㅎ), 四:(네ㅎ), 卅(누·리:/뉘)와 같이 상정되고 말음절의 악센트가 去聲 또는 上聲이다. 따라서 이들은 訓讀과 音讀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진다. 마지막의 ‘卅 7十’은 ‘7’이 訓 ‘누·리:/뉘’의 말음첨기로 보이므로 ‘卅’를 혼독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11ㄱ)의 ‘彼, 時’의 경우처럼 ‘7’을 한자음 ‘卅’의 말음첨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 용례를 통해서 ‘-7’이 15세기 한국어의 ‘·-애/·-에’ 계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익/·-의’ 계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6) 이들 예에서 ‘彼, 時’를 音讀해서 ‘7’을 한자음의 末音添記로 보는 해석에 대해서는李建植(1996: 164~169)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었다. 본고는 거기서 논의된 것들 중에서 ‘彼 7十, 時 7十’을 *彼 7 7十, *時 7 7十에서 ‘7’이 생략된 표기라고 하는 주장을 제외하고 ‘7’을 그들 한자음의 말음첨기라고 하는 주장을 일단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南豐鉉(1999: 28)에서 지적되었듯이 말음첨기는 원칙적으로 訓讀하는 요소에 나타나며 音讀하는 요소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11ㄷ)의 ‘時十, 時十十’는 (11ㄱ)의 ‘時十十, 時十十十, 時十十十十’과 달리 末音添記 ‘十’가 없지만, 이것 역시 音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 번 확인을 했듯이 ‘時’의 訓 ‘ㅅ’는 平聲이기 때문이다. 또 ‘爾時十, 是時十’의 예는 2음절 한자어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 (12), (13)과 같은 예를 참조해 보면 ‘爾時十, 是時十’와 같이 두 단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쨌든 간에 ‘時’ 부분은 音讀했을 것이다.

(12) ㄱ. 爾十十十 時十 諸十 大衆十 俱十十 十 共十 僉然十 生疑十 各
十 十 <舊譯仁王經 上 02:19>

ㄴ. 爾十 時十 賢首菩薩十 偈乙 以 十 答十 曰 十 十 <華嚴經 卷14
09:01>

(13) ㄱ. 菩薩十 是十十 時十 心 十 十 (是)十 念乙 作十十十十 <華嚴經疏
卷35 12:15>

ㄴ. 是十十 時十 世界十 其 地十 六種 震動十 十 十 <舊譯仁王經
上 02:18>

마지막으로 (11ㄷ)의 예는 15세기 한국어의 訓이 각각 ‘上+(우ㅎ), -(ㅎ나ㅎ)’과 같이 상정되고 말음절의 악센트가 平聲이기 때문에, 이들은 訓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音讀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⁷⁾

그런데 ‘-十’는 그 음이 ‘기/괴’ 또는 ‘히/희’와 같이 추정되므로 ‘-·애/·에’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南豊鉉(1977: 73)에 의하면 중세 한국어의 처격형은 (1)에 제시한 ‘-·예, -·애/·에, -·이/·의’ 외에 따로 ‘-·회’가 있었다고 한다. 다음 (14)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14) ㄱ. 驢子·는 豆餵 아·드리·니 前年·회 :말 ㅅ·홀 제 :사름·과
소·너 姓·을 무·러 :알며 老夫의 詩·를 외·오더·니라 [驢子好
男兒 前年學語時 問知人客姓 誦得老夫詩] <初刊本 杜詩諺解 卷8 47a>

17) 다만 ‘ㅎ나ㅎ’은 말음절이 平聲임에도 불구하고 15세기 한국어에서 ‘ㅎ나·히’는 잘 안 보이고 ‘ㅎ나·해’가 많이 나타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을 訓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나. :가·스·하다·가 년·회·플·어·디거·든 삼년·을·맞·다·서
·갑·받·디 :말·오·소리·라·호·야 [假如明年倒了時 管的三年
求要功錢打 <翻譯朴通事 上 10b>

南豐鉉(1977: 73)은 이 ‘- 회가 - 인/ 의’의 先行形의 잔영으로 보았다. 이것이 ‘- 인/ 의’의 先行形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 처격으로 따로 ‘- 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 흡은 ‘-+’와 가까워진다. 그러나 ‘- 회’의 實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¹⁸⁾

이렇듯 ‘-+’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단정지을 수 없을 듯하며, 일단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V.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나는 처격 ‘- ㅅ +, - ㅅ, - ㅅ, - ㅅ, - ㅅ + / - ㅅ +, - ㅅ +, - ㅅ +’ 등에 대해서 15세기 한국어의 체계를 참조하면서,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15세기의 ‘- 애/ 에’ 계통에 속하고, 어떤 것이 ‘- 인/ 의’ 계통에 속하고, 또한 어떤 것이 ‘- 에’ 계통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형태로 나타난 명사의 독법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 인/ 의’ 계통으로 확실하게 판단되는 것은 ‘- ㅅ’뿐이고, 나머지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 애/ 에’ 계통으로 판단되는 것이 많으나,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이와는 달리 해석될 것도 있음을 보았다. 이 ‘- ㅅ’로 나타난 한자는 말음절의 악센트가 平聲인 固有語로 訓讀했음을 말해 주는데, 그 용례는 유독 ‘前 ㅅ(알

18) 예문 (14)에서처럼 처격이 ‘- 회’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南豐鉉(1977: 73)의 해석과는 달리, 원래 ‘ㅎ’중성 체언이 아니었던 것이 근대 한국어 시기에 이르러 마치 ‘ㅎ’중성 체언처럼 ‘ㅎ’이 첨가되어 나오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 회’는 先行形의 잔영이 아니라, 거꾸로 新形의 出現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洪윤표(1994: 239-240)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체로 모음이나 ‘ㄹ’ 다음에 ‘ㅎ’이 표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므로, 예문 (14)와 같은 ‘前年, 년년’은 이 條件을 만족시키지 않아 약간 문제가 된다.

꺾)'가 있을 뿐이었다. 물론 '··애/·에' 계통의 처격형으로 나타난 한자어 중에서도 말음절의 악센트가 去聲 또는 上聲인 고유어로 訓讀한 것도 있었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석독구결자료는 우리가 想像하는 것보다는 音讀을 더 많이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석독구결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한국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15세기 이후의 정음 문헌을 참조해야 함을 논하였고, 또한 15세기 한국어를 검토할 때에는 傍點으로 표기된 악센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됨을 논하였다. 논의가 다소 얕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각 연구자들이 비교적 자기 나름대로 해독해 온 지금 현재의 석독구결자료 연구 현황에 대해, 그 해독 방안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국어학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參考文獻

- 南豊鉉(1977), 「國語 處格助詞의 發達 -舊譯仁王經의 口訣을 중심으로-」,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서울, pp. 69~93.
- 南豊鉉(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 태학사, 서울.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pp. 121~205.
- 유필재(2001), 「中世國語 聲調 研究史」, 『울산어문논집』15,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pp. 133~158.
- 李建植(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研究』12, 口訣學會, pp. 47~80.
- 韓相花(1994), 『祇林寺本 『楞嚴經』 口訣의 研究』, 聖心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서울.
- 河野六郎(1955), 「朝鮮古文獻의 聲點について」, [河野六郎(1979)에 수록].
-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1, 平凡社, 東京.
- 志部昭平(1990), 『諺解 三綱行實圖研究 -本文·校註·翻譯·問題篇-』, 汲古書院, 東京.